3조의 조사 주제는 창원시 청년들의 지방 이탈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이며,

조사설계, 측정목표, 인적 사항 분석결과, 인식조사 분석결과, 지방 이탈 관련 조사 항목 분석 결과, 결론 및 제언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사 배경 및 목적입니다. 현재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떠나가는 지방 이탈 현상이 각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현상을 창원시에 거주하는 청년(만 19세~34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지방 이탈의 인식 및 원인을 파악하고,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 지방 이탈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응답자 선정 및 조사과정은 조사 지역(상남동, 용호동, 합성동, 석동)에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행인들에게 나이와 창원시 거주 여부를 물어본 후, 창원시 거주 청년(만 19~34세) 270명을 편의로 추출하여 설문 진행하였습니다.

측정 목표 테이블 입니다. 인적사항, 인식조사, 지방 이탈 관련 조사 항목, 개선 방안으로 대분류를 나누어 조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인적사항에 대한 분석 결과 입니다. 조사 대상자의 성별 및 나이에 대한 교차분석 표 입니다.조사 대상 270명중 만 19~23세 응답자 중 남자는 29.6%, 여자는 70.4%. 만 24~28세 응답자 중 남자는 57.1%, 여자는 42.9%.  만 39~34세 응답자 중 남자는 46.2%, 여자는 53.8%.가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조사 대상자의 직업은 직장인과 학생이 각 48.5%, 3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방 이탈에 대한 인식조사 사항입니다. 나이에 따른 지방 이탈 현상의 심각성 체감 정도 교차분석 표 입니다. 19-23세와 만 24-28세의 경우 심각성 체감 정도 40~60 에서 각 51.9%, 48%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습니다. 만 29-34세의 경우 심각성 체감 정도 60-80에 39.6%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습니다.

나이에 따른 지방이탈의 가장 큰 원인 교차분석 결과입니다. 모든 연령에 걸쳐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일자리 다양성의 부족이 각 38.5%, 3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령이 올라갈수록 일자리와 관련된 응답을 한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나이가 어린 수록 문화 인프라의 부족을 원인으로 꼽는 비율이 증가함을 확인 하였습니다.

나이에 따른 지방 이탈이 초래하는 문제점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입니다. 만 19~23세는 34.6%가지방-수도권 간 인구 수 불균형 심화를, 만 24-28세는 28.6%가 일자리 불균형 심화를, 만 29-34세는 29.7%가 지방 경제성장 저하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응답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 이탈 관련 조사항목에 대한 분석 결과 입니다.

나이에 따른 수도권으로의 이주 계획 여부 교차분석결과 입니다. 수도권으로 이주 계획이 있는 나이대는 만 19-23세가 37.0%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으로의 이주 계획 유무와 창원시 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 간의 스피어만 상관 분석을 진행하면 유의확률 0.025 < 유의 수준 0.05로 이는 해당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상관계수는 - .136으로 이는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즉, 창원시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을수록, 수도권 이주 계획은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수도권으로 이주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에 대하여 실시한 나이에 따른 수도권 이주 계획 지역 교차분석 입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서울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수도권으로 이주 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에 대하여 실시한 나이에 따른 수도권 이주 계획을 가진 이유 교차분석 입니다. 모든 연령에서 취직/이직을 이유로 뽑은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모든 연령에서 두번째 이유로는 수도권의 문화 인프라를 즐기기 위함 이라고 응답 하였ㅅ습니다.

앞의 문항에서 해당 응답에 대해 구체적 기술을 요청 하였습니다. 취직/이직의 응답자는 인터넷 은행, 반도체, it 직종, 언어 치료 등의 응답을 개방형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부호화 진행하여 위와 같은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도권의 문화 인프라를 이유로한 응답자들에게도 미술관, 전시회, 페스티벌, 복합 문화공간 등의 응답을 수집하여 위와 같이 부호화 진행하였습니다.

학업/자기개발의 경우에도 조사를 진행했지만 표본이 6명으로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수도권으로 이주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에게 대하여 진행된 나이에따른 지방으로의 재이주 의사 교차분석 결과입니다. 나이가 19-23세가 53.6%로 다른 나이대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직업, 이주계획지역, 취직/이직 직종 등 여러 항목들 중 너무 작지 않은 표본이 수집된 항목에 대하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돌아올 의향의 비율을 교차분석한 결과입니다.

이중 학생의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돌아올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0%로 이는 27.6%의 직장인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수도권이 아닌 타지역으로의 이주 계획에 대해 조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수도권으로 이주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에 한해 응답을 받았으며, 나이가 어릴수록 타지역 이주 계획이 있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이 아닌 타지역으로의 이주 계획이 있는 44명의 응답자 중 47.7%는 부산으로 이주를 계획 하고 있으며 이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방형으로 수도권이 아닌 타지역에 이주할 계획이 있는 응답자들에게 그 이유에 대해 기술을 요청했습니다. 취업 및 유학, 학업, 취업 및 이직, 부산이 본가라서, 창원의 인프라 부족 등의 응답을 부호화하여 지역에 따른 교차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전체 지역에서 취업 및 이직의 응답이 50%로 가장 높았으며. 이중 부산으로의 이주를 취업 및 이직을 이유로 계획하고 있는 응답자는 20.8% 였습니다.

7가지 항목에 대한 창원시 거주 만족도의 남녀별 평균을 각각 나타내었습니다. 남녀간 평균에서 전반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만족도에 대하여 나이별로 평균을 나타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으며, 교통의 경우 나이대별 만족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경제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만 나이와 만족도의 평균 간의 Pearson 상관 분석을 진행하면 유의확률 0.000 < 유의수준 0.01으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피어슨 상관계수는 -.245로 이는 약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만 나이가 증가할수록 창원시 청년들의 '문화생활인프라', '일자리', '교통' 등 7가지 항목에 대한 평균 만족도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만족도에 대하여 직업별로 평균을 막대그래프로 나타내었습니다.

창원시 장단점에 대해 조사를 진행 후 나이대별 교차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장점입니다. 모든 나잇대에서 교통을 장점이라고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만 19-23세의 경우 문화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연령에 비해여 높게 나타났습니다.

단점입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문화를 단점으로 꼽은 비율이 늘어나며, 만 24-28세의 경우 일자리를 단점으로 꼽은 비율이 다른 나잇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창원시에서 시행중인 청년 지원 정책 참여 유무를 나이에따라 교차분석 하였습니다. 연령대에 상관없이, 사업 참여율이 낮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청년 지원 정책에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정책 만족도 조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매우만족의 비율이 높았고,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낮아짐을 확인하였습니다.

창원시 청년 지원 정책에 참여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미참여 이유에 대한 조사를 진행후 나이대별 교차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만 19- 23세와 만 24-28세는 ‘관심이 없음’에 대한 응답이 각46.0%와 45.5%로 가장 높았으며, 만 29-34세의 경우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응답이 50.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청년 지원 정책이 청년들의 지방이탈을 줄이는데 도움 여부를 나이에 따라 교차분석 하였다.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어릴수록 청년 지원 정책이 청년들의 지방이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 하였다.

창원시에서 시행중인 청년 지원 정책 중 가장 성공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에 대하여 나이별로 교차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생활 안정비 지원은 만 19~23세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았고, 월세지원은 만 24-28세, 만 29-34세에서 각 46.0, 45.5%로 높게 나타났다.

나이에 따라 필요로하는 정책에 대하여 교차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으며, 두번째로는 문화 인프라 확대 및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 하였습니다.

창원시에서 청년들의 지방이탈을 줄이기 위해 개선할 사항을 개방형으로 기술 받았습니다.

받은 응답들을 토대로 부호화 한 결과, 문화 인프라 확대와 일자리 다양성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기타 및 주요응답에 대해서는

* 지방 일자리 다양성의 확대, 문화인프라 확대 필요. 청년 지원사업에 있어 청년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반영하여 돈을 지원해주는 사업 외에도 다양한 사업이 기획되었으면 좋겠음
* 반도체 산업 육성,의료 및 교육 인프라 확충,부동산 정책 활성화
* 외부에서 유입된 전입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은 많지만, 기존 창원 시민에대한 해택은 부족함
* IT,인공지능,친환경 등 창원시 청년들이 기술을 습득하고,이를 바탕으로 창원시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기업 형성,창원시주거비용 혜택지원
* 수도권과 비교해서 창원시에 정착해서 살만한 이점이 없고,혜택도 적음,교통도 불편하지 않지만 수도권에 비하면 크게 편한 것도 아님,일자리가 한정
* 청년들을 위한 세금사용
* 큰 규모의 백화점 필요(다양한 브랜드가 입점되어있는 백화점 필요)
* 수도권과의 연결성 강화. 경제활동 및 거주는 창원에서 하되, 언제든 수도권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 다양한 일자리(제조업으로 일자리가 치우침)
* 단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유치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결론 및 제언 중 결론 입니다.

다음은 조사의 한계점 입니다